

요소수지 수요 7% 감소 “사양길”

내수성·유해성 단점 멜라민 수지로 대체…92년 수요 1만3000톤

국내 요소수지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국내 요소수지 수요는 1만4000톤을 기록했으나 92년에는 7% 감소한 1만3000톤으로 알려졌다. 이는 요소수지가 내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합판용 요소수지의 수요가 감소했고, 대부분 식기용 수도 위생상의 문제로 멜라민수지와 기타 범용수지로 대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멜라민수지의 국내수요는 2만2000톤으로 91년의 1만9000톤보다 14% 증가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있다.

국내의 요소·멜라민수지 제조기업은 10여개사로 연간 3만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동아·대중·동광 등이 전체의 5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멜라민수지는 국내수요 3만5000톤 중 5000톤을 수입, 국내 총수요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자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 · 멜라민수지 수입추이					(단위 : 톤, 1000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1992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요 소 수 지	1,383	2,246	1,340	2,595	1,079	2,259	1,016	2,000
멜 라 민 수 지	2,302	6,717	2,929	7,385	3,413	8,729	3,919	8,863
합 계	3,685	8,963	4,269	9,980	4,492	10,988	4,935	10,863

요소수지와 멜라민수지는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형재료·접착제·섬유가공제·제지가공제 등에 함께 사용되었으나 멜라민수지의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요소수지를 점차 밀어내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민수지는 90년까지 합판의 접착제로 60%이상을 사용했으나 합판산업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주로 성형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료용 멜라민수지는 도료기업들이 멜라민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제조·소비하고 있는데, 애경화학에서 연산 2400톤 규모의 도료용 멜라민수지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민수지와 요소수지의 원료는 한국비료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어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산가격은 KG당 1000원, 중국산은 930~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요소수지와 멜라민수지는 가격차이가 매우 커 요소수지는 톤당 20만원인데 비해 멜라민수지는 10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화학저널 1993/7/26>